19. 미술관 즐기는 방법

오미야 분재 미술관은 호기심 왕성한 어린이부터 박식한 분재 팬까지 다양한 감상자에 맞춘 다채로운 이벤트, 액티비티 특별전을 1 년 내내 개최하고 있습니다. 이벤트 중에는 영어를 지원하는 이벤트도 있습니다.

미술관 특별전으로 여름방학에 맞춰 어린이를 위한 분재 문화 전시도 개최됩니다. 영어와 일본어로 된 패널 전시는 분재 문화와 1,000 년 이상 이어진 분재의 역사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. 그 외 특별전은 분석(盆石, 돌과 흰모래로 만든 미니어처 풍경) 등의 테마도 소개하고 있습니다.

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는 한 달에 1 번 개최되는 초보자를 위한 정기 분재 워크숍이 있습니다. 워크숍에서는 재배 기초를 소개하고, 참가자에게 자신만의 계절 분재를 만들 기회를 제공합니다. 어린이를 위한 워크숍에서는 6 세~15 세까지의 초·중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. 열성적인 분재 팬이라면 오미야 분재 마을의 분재원 전문가한테서 더 자세히 배우는 클래스에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. 워크숍과 클래스는 일본어로 진행되지만 영어 통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연간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‘유카타 de 본비(분재 미술관)’입니다. 7 월 중순부터 8 월 말까지 일본의 전통 의상 ‘유카타(여름용 간단한 기모노)’를 입은 관람객은 무료로 미술관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. 유카타는 성인용만 무료 대여도 가능합니다. 또한 복장에 상관 없이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. ‘유카타 de 본비’ 기간에는 딱 하루 클래식 음악 리사이틀도 진행됩니다.